DREAM
MAKE IT.

14-22
2014.06.09

체어퍼슨 노트

주간브리핑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1분기 국민총소득 성장률 둔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인하 결정
- 경영 노트 : 조직 내 나쁜 싹을 제거하는 4가지 방법
- 사회 트렌드 : 환경파괴로 세계 언어 25% 소멸 위기
  중국, 살라미 전술로 아시아 잠식
- 저널 브리프 :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매너
- 금주의 도서 : 부의 탄생
- 洗心錄 : 세상사, 이해관계의 연속

현대경제연구원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1분기 국민총소득 성장률 둔화

○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집계 결과, 소득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하회**

-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 2014년 1/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각각 0.5%, 0.9%를 기록. 수입 감소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득증가율과 국내총생산 증가율의 격차가 확대
- **경제활동별 동향** : 제조업이 석유제품과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호조로 2.2% 성장하였고, 서비스업 역시 음식 숙박업은 부진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 운수 및 보관 등이 늘어 0.6% 확대
- **지출항목별 동향**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0.2%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부진에 따라 1.9% 감소.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5.1% 증가하였고, 지식재산 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6.5% 증가

○ **수입과 민간소비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입 축소에 따른 '내수 불황형' 흑자가 하반기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확대**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인하 결정

○ **유럽중앙은행(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을 발표하여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기조**

- **기준금리** :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종전 0.25%에서 0.15%로 인하, 이는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로 2013년 11월 이후 7개월 만에 하향 조정
- **초단기금리** : ECB의 초단기 예금금리는 현행 0%에서 -0.1%로, 초단기 대출금리는 현행 0.75%에서 0.45%로 인하(사상 처음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
- **정책 시행 배경** : 유로존의 5월 물가상승률이 0.5%로 전월(0.7%)대비 둔화되고, 5월 제조업 PMI가 52.2로 전월(53.4) 대비 다소 부진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조치

○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유로존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로화 약세가 예상되나, 양적완화 정책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가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조직 내 나쁜 싹을 제거하는 4가지 방법[1)]

○ **부정적 행동(이기심, 심술궂음, 두려움, 게으름, 부정직)은 건설적인 행동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침**

- 상사나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에 비해 이들과의 부정적인 상호 작용이 직원들에게 5배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보다 널리 퍼뜨리는 경향이 있음

○ **'좋은 행동'을 강화하여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전에 '나쁜 행동'을 척결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함**

- 나쁜 행동이 만연한 탓에 좋은 행동이 설 자리를 잃으면 탁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대한 효과로 이어지지 않음

< 조직 내 나쁜 싹을 제거하는 4가지 방법 >

	내 용
일찌감치 나쁜 행동의 싹을 자르라	• 깨진 유리창 한 장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유리창들도 머지않아 깨지기 마련 • 뉴욕은 낙서, 구걸 등 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노력은 범죄율 급락으로 이어졌음
인기 있는 직원을 활용하라	• 남미에서 대형 소매 체인을 운영하는 한 경영자는 임직원들에게 회의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임직원들은 계속해서 사용 •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2명을 따로 불러 회의 중에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어 달라고 부탁. 또한 다른 회의 참석자들 역시 휴대전화를 끄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
부정적인 행동에서 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라	• 캐나다에 있는 한 대형 제재소에서 노동자들이 공구를 몰래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자꾸 발생했고, 회사의 피해액은 연간 100만 달러에 수준 • 근로자들은 공구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릴을 즐기고 동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절도를 벌였음 • 회사는 직원들에게 장비를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원하면 언제든 빌릴 수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은 스릴이 없기 때문에 절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짐
현재의 자아에서 미래의 자아로 타임 시프팅을 시도하라	•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도록 만들면 나쁜 패턴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됨 • 부정적인 행동이 어떤 여파를 초래하는지 좀 더 생생하게 알려주기만 해도 미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타임 시프팅) 유도할 수 있음

1) 'Bad to Great: The Path to Scaling up Excellence'(Mckinsey Quarterly, February 2014)를 요약 정리함.

□ 환경파괴로 세계 언어 25% 소멸 위기[2)]

○ **환경 파괴로 인해 동식물은 물론 인간의 터전이 해체되고, 결국 이들이 쓰는 언어도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는 세계자연기금(WWF)의 보고서를 인용, "환경 파괴가 빠르게 진행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언어 7,000여 개 중 6%가 이미 사라졌다"며 "나머지의 25%도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지 않고 소멸할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보도
- 생활 터전이 사라지면서 토착 부족의 해체가 가속화됐고, 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언어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됨
- 실제로 7,000여 개 언어 가운데 90%는 10만 명도 쓰지 않는 '희귀' 언어임

○ **세계에서 둘째로 큰 섬인 뉴기니 섬이 사례**

- 급격한 열대우림 개발로 멸종 개체 수가 늘어나고 토착민의 주거 환경이 파괴되면서, 과거 1,000여 개에 달했던 뉴기니 섬의 언어는 현재 절반 이상 소멸됐음

□ 중국, 살라미 전술로 아시아 잠식[3)]

○ **세계적인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중국이 지난 100년의 굴욕기를 거쳐 다시 돌아왔다"며 "살라미(salami) 전술로 아시아를 잘게 쪼개 잠식해가고 있다"고 밝힘**

- 살라미 전술이란 목표를 세분화한 뒤 하나씩 쟁점화시켜 해결하는 접근방식

○ **중국은 과거 왕조시대처럼 아시아에서 '넘버 원'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임. 즉 중국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의 산호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해 '우리가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임

---

2) '환경파괴로 세계 언어 25% 소멸 위기'(조선일보, 2014.6.9)를 요약 정리함.
3) '후쿠야마 교수, 중 살라미 전술로 아시아 잠식'(한국경제, 2014.6.9)을 요약 정리함.

□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매너[4)]

○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매너를 다음과 같이 소개

- 인도네시아는 인구에 기반한 거대 내수 시장, 풍부한 자원 및 에너지, 외국인 투자의 지속 유입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
- 관습법이 실제 법처럼 도덕적 잣대 이상으로 통용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즈니스 매너가 특히 중요

① 목욕과 인사

-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욕을 의미하는 '만디(Mandi)'는 우리처럼 때를 미는 목욕이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몸에 물 끼얹듯이 하는 샤워를 의미
- 더운 날씨에 하루에 2~3번 꼭 목욕을 하는 문화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를 하듯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욕했어요?"라고 인사를 하므로 실제 목욕 여부와 무관하게 긍정의 답을 하면 됨

② 시간 관념

-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무 시간(Rubber Time)이라는 의미의 '잠 까렛(Jam Karet)'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약속시간에 늦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
- 과거 네덜란드 통치 시기 네덜란드인의 가혹한 노동 조건을 견뎌내기 위해 정해진 일을 아주 천천히 하는 관습이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시간에 관대하므로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함

③ 왼손의 의미

- 인도네시아의 관습법 '아닷(Adat)'에 의하면 왼손은 지저분한 일을 할 때만 사용하고 중요한 일은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왼손을 쓰는 것은 금기
- 사람을 가리킬 때나 물건을 건네줄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며 오른손이라도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모욕적이므로 오른손 전체를 이용해야 함

④ 암묵적 의사 전달

- 인도네시아인들은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고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면전에서 제안을 거절하거나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김
- 인도네시아인들이 제안을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만약 "이번 계약 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표현했을 경우 거절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판단

---

4) "'목욕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인사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요?"'(동아비즈니스리뷰, 2014.06.04) 참조.

□ 부의 탄생[5)]

윌리엄 번스타인은 월스트리트가 아닌 풀뿌리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정직하고 사려 깊은 투자이론가로 유명. 화학박사와 의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투자이론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신경과 전문의로 활동. 저서로는 <현명한 자산 분배자>, <투자의 네 기둥> 등이 있음.

○ **한 나라의 장기적인 번영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물적 대상이나 천연자원이 아닌 제도(인간의 사고·상호작용·사업활동의 틀)임을 역설**

- 저자는 '왜 경제성장과 기술진보는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 설명
-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효과적인 자본시장, 효율적인 수송과 통신 등 네 가지 제도가 완비되면 번영이 일어나기 시작

○ **(재산권 보호) 물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지적인 재산과 개체로서의 인간 자신에 대한 권리도 포함**

- 개인이나 조직의 산출물이 적은 비용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혁신과 생산을 할 인센티브가 없음
- 권력분립에 의해 쪼개지고 법치에 의해 제한되는 정부만이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과학적 합리주의) 세계를 검토하고 해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 자신의 주변 환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효과적인 지적인 도구가 없다면 발명가도 무력해짐
- 혁신이란 매우 전복적인 과정으로 이견을 억압하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종교적 관용이 필요

○ **(효과적인 자본시장)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풍부하고 공개적인 자금원**

- 발명가와 기업가가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적인 도구를 가진 다음에는, 자신들의 발명들을 더 많은 공중에 제공하기 위해 다량의 금융자본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특히 기업에 대한 유한책임제도가 등장하면서 거대한 비인격적 기업의 설립과 그것에 대한 출자자 용이해짐

○ **(효율적인 수송·통신) 중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사람과 재화를 수송할 능력**

- 제조의 마지막 단계는 그것들을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구매자들에게 알리고(통신), 공급(수송)하는 일

5)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김현구 옮김, "부의 탄생(The Birth of Plenty)", 시아출판사, 2005.

□ 세상사, 이해관계의 연속

장자(壯子) 산림(山木)편에는 장자가 숲속에서 사냥을 하면서 느낀 우화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루는 장자가 숲속에서 사냥을 즐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까치 한 마리가 남쪽에서 날아들었다. 이 까치의 날개는 일곱 자, 눈은 한 치나 될 정도로 큰 놈이었다. 그 까치는 장자의 이마를 스칠 듯 날아가 밤나무 숲에 앉았는데, 날아가는 모습은 물론이요 앉은 모양새 또한 어찌나 어색하든지 그 모습은 모던 장자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참 이상한 까치구나. 저렇듯 큰 날개를 가지고도 잘 날지 못하고, 그 큰 눈을 가지고도 나와 부딪힐 뻔할 정도로 앞을 잘 보지 못하다니. 내 저 까치를 잡아 정체를 알아야겠다."

장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밤나무 숲에 앉은 까치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하지만, 화살을 겨눈 상태에서 자세히 보니 어색했던 그 까치의 행동은 나무에 붙어있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즉,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느라 장자가 다가와 자신을 잡으려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사마귀를 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그 때 사마귀는 사마귀대로 까치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나무 그늘에 붙어 울고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까치와 사마귀 모두 자신이 위험에 빠져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먹이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이를 목격한 장자는 언뜻 '아! 먹이를 노림으로써 스스로 먹이가 되는구나. 너무나도 위험하기 짝이 없구나!'라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마자 바로 장자는 활과 화살을 버리고 황망히 밤나무 숲에서 빠져 나왔다. 하지만 장자도 밤나무 숲지기에게 붙잡혀 몰래 밤을 따러 온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 실컷 욕을 들었다. 까치를 노렸던 장자 자신도 결국은 밤나무 숲지기의 표적이 되고 만 것이었다. 집에 돌아 온 후 장자는 3개월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저 인간사나 세상사도 이처럼 복잡한 상호이해관계로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로 자칫 일을 그르칠 우려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우리가 속세에 사는 이상 속세의 법도를 따라야만 할 뿐 아니라 복잡한 상호이해관계에서 해를 입지 않으려면 냉철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닌, 무엇이 옳으냐다.

- 토마스 H. 헉슬리(1825-1895): 영국의 동물학자